

보호받지 못한 섬마을 여선생님 초등학교 관사엔 CCTV도 없었다

인면수심 학부모·주민 3명이 20대 여교사 성폭행·추행 '파문' 안전장치 전무...교육부,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발령 자제 모색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학부모와 주민의 20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의 격오지 인사시스템과 관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방 효과를 염두에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상 도서 벽지가 많은 전남교육청은 낙후지역 교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착이들의 주거 시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

교육부는 당장 신규 여교사들의 도서벽지 발령을 지양하는 내용의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든 만큼 안전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CCTV도 없는 섬 초교 관사=목포경찰은 "관사 주변 CCTV를 살펴보려했지만 없었고, 가장 가까운 CCTV가 관사와 1~1.5km 거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섬 초등학교 관사의 경우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지만

경비인력은 고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은 5일 성명을 통해 도서벽지 배치 교사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통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76.9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의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여교사 가정방문시 경찰 동행 의무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 관사에는 모두 4414명의 교사가 입주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322동의 관사에서 550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지

역의 여교사 비율은 47.9%였다.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 발령 인사시스템 정비=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교사들을 도서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서 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낱도 오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서벽지 근무는 가산점이 필요한 경력자들이 선호하며 신규 발령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신규 발령을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빛속 개구리는 모심기 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에서 열린 '개구리는 모심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비가 오는 곳엔 날씨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모를 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하늘로 떠난 곡성군 공무원 마지막 선물은 '용서'

발인 마친 유족, 투신 대학생 가족 만나 "우리 모두 피해자"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에 부딪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곡성군청 고(故) 양대진(39·7급) 주무관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용서였다.

지난 3일 오후 양 주무관의 발인을 마친 유가족 2명은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투신 자살한 대학생 유모(25)씨의 가족을 만났다. 지난 1일 양 주무관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던 유씨의 가족들은 이날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했다.

양 주무관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며 "용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서로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유씨의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양 주무관의 가족들은 "여러 사람의 많은 관심에 감사 드린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날 오전 양 주무관의 발인식은 유족, 지인, 직장동료의 예도 속에 진행됐다. 양씨는 광주 영락공원에 잠들었다. 곡성군청은 양 주무관의 공무상 재해처리를 위한 자료를 취합 중이다. 양 주

무관의 몇 개월간의 추가 근무 내역과 각종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유족의 신청서와 함께 이달 둘째 주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주무관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유족들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청 관계자는 "출퇴근까지도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야근을 끝내고 귀가하던 양 주무관은 지난 31일 오후 9시48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투신한 유씨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저녁 식사 하러 학부모 식당 갔다가... '토요일밤의 악몽'

경찰 조사로 본 범죄의 재구성

술 강권에 정신 잃자

관사 데려다 준 뒤 범행

"금수(禽獸)가 아니고서야..."

지난 3월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에 발령 받은 20대 여교사는 지난 달 21일 육지에 나갔다가 섬으로 돌아온 직후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박모(49)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이날 지인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하고 있던 박씨는 여교사를 반강제 맞았고, 자신들의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권했다. 여교사가 다음날 섬 주변 여행 계획 때문에 거절했지만 박씨 등은 "작은 마을에서 이웃끼리 친분이야 쌓자"며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술자리에는 박씨, 박씨와 '삼촌, 조카'로 부르며 지내는 이모(35)씨, 유치원 학부모인 김모(39)씨 등이 함께 했다. 여교사는

이 때만 해도 학부모와 주민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교사는 이날 박씨 등이 강권한 인삼주를 마시고 급기야는 정신을 잃었다.

박씨는 이날 밤 11시께 "선생님을 데려다 줘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식당을 나섰고, 관사에 도착하자 피해 여교사를 20여분간 성추행 뒤 조용히 관사를 빼제내었다.

이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박씨의 뒤를 쫓았다. 주변에 다다른 이씨는 박씨의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관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씨는 이씨가 관사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김씨에게 "이씨가 수상하다. 관사에 가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교사가 잠들어 있는 관사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이씨를 내보냈다.

그 순간 김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잠들어 있던 여교사에게 목을 짓을 저지르고 관사를 빠져나왔다. 이씨는 김씨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다시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각각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된 박씨, 이씨와 달리 김씨는 여전히 혐의 자제를 전연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여교사의 신체 등에서 김씨와 이씨의 DNA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박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에게는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이씨와 김씨에게는 특례법상 주거침입 중간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씨 등은 공모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같은 마을에서 자주 얼굴을 보며 지내는 이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버지 살해' 남매 기소...범행 동기 원한 추정

어버니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형의로 구속된 4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남매는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이씨와 김씨에게는 특례법상 주거침입 중간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씨 등은 공모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같은 마을에서 자주 얼굴을 보며 지내는 이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의 교통사고 보험금이었다. 2004년 어머니(2011년 사망)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9년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자 아버지에게 이를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7년간 연락조차 없이 살아온 남매는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지난 3월 말남 동생 B씨가 아버지를 찾아가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남매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수감실을 암수색해 확보한 영치물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음주 적발 앙심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단속에 앙심을 품고서 20여분만에 같은 자리로 되돌아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가 절망 신세.

○5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1t트럭을 몰고 담양군 담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추돌, 차안에 있던 의무경찰 3명과 주변에 있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불과 20여분 전 같은 자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5%(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데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어 사고를 회피하려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를 구속.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796백만원 최저가 5억5천7백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2중주택 2층상가 대지 705 건물 600 감정가 8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6백
- ★ 광주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인근 도로변 2층상가 대지 289 건물 388 감정가 3억5천9백 최저가3억5천9백 현 식당상업중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전역인근 5층숙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상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거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1216백 최저가 85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도로변 3층상가 대지 691 건물989 감정가 8억8천3백 최저가 4억9천4백만원 병의원적합
-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해안가 5층모델 대지 1,449㎡ 건물 1,258㎡ 감정가 9억5천7백 최저가 2억7천4백만원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영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감정가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 전남 장성군 화림리 전 1574 첨단3지구인근 도로변 감정가 8천1백만원 최저가 8천1백만원 주말농장 최적합
-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도로변 담 1032 감정가 2천만원 최저가 2천만원 전망좋은 전원주택적합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4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5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 광주 서구 치명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3, 27)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델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48천 추가3억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 6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성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중 결정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상가 및 전원주택부지 파실분 문의 환영(실수요자 다수확보) 062-714-2251